

# 보성다향대축제, 문화체육관광부 '로컬 100' 선정

### 로컬에서 국가 대표 글로벌 문화관광 자산으로 인정

보성군은 '보성다향대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로컬 100(Local 100)'에 선정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로컬 100'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이야기를 기반으로 지역성을 대표하면서도 관광·산업·콘텐츠로 확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로컬 자산을 발굴·선정하는 사업이다.

보성다향대축제는 보성의 대표 자원인 차(茶)와 계단식 차밭 경관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콘텐츠, 안정적인 운영 체계,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프로그램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로컬 100'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계단식 차밭을 무대로 한 프로그램과 전통 차문화의 현대적 재해석, 세대와 국적을 아우르는 공연·체험 콘텐츠는 보성다향대축제를 지역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 문화 관광축제로 성장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

보성군은 이번 '로컬 100' 선정을 계기



로 보성다향대축제를 지역의 상징 콘텐츠로 더욱 고도화하고, 차 문화·관광·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성만의 차별화된 차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광양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수소버스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소전기승용차와 수소버스를 구매하는 시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보급 물량은 총 113대로, 차종별로는 ▲수소전기승용차 100대(대당 3,450만 원) ▲수소저상버스 3대(대당 3억 원) ▲수소고상버스 10대(대당 3억 7천만

## 광양시, 수소전기자동차·수소버스 민간보급사업 추진

### 수소차 보급 확대 통해 탄소중립 실현 및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광양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광양시에 소재한 법인·단체·공공기관 등이다. 특히 수소버스의 경우, 2025년까지는 광양시 소재 시내 전 세버스 운송사업자로 신청 자격이 제한됐으나, 2026년부터는 광양시 소재 법인 등으로 신청 요건을 완화해 참여 대상을 확

대했다.

신청은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수는 개인 및 세대당 1대, 개인사업자 1대, 기업·법인·단체당 최대 3대까지 가능하며, 대상자는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수소버스 민간보급사업의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수소전기자동차와 수소버스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무공해 교통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5년까지 수소전기자동차 253대(수소버스 18대 포함)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2개소를 구축하는 등 수소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오고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 곡성 여행하면 최대 8만원 돌려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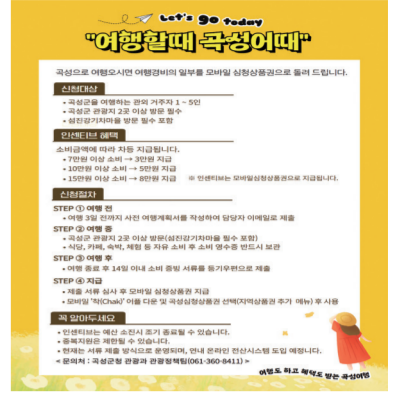
### '여행할때 곡성어때' 인센티브 지원사업 운영

전남 곡성군이 여행 중 소비한 금액에 따라 최대 8만 원을 돌려주는 관광 인센티브 지원사업 '여행할때 곡성어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곡성 여행 중 실제 소비한 금액을 기준으로 혜택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여행을 즐기며 식사하고, 숙박하고, 체험하면 모바일 심정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소비 금액별 인센티브 혜택은 ▲7만 원 이상 소비 시 → 3만 원 지급, ▲10만 원 이상 소비 시 → 5만 원 지급, ▲15만 원 이상 소비 시 → 8만 원 지급을 지급한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곡성군 관광지 2곳 이상 방문이 필요하며, 이 중 심정상품권 구매 방문은 필수다. 대표 관광지를 중심으로 곡성 곳곳을 여행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여 방법도 간단하다. 여행 3일 전까지 사전 여행계획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한 후 곡성 여행을 즐긴 후 여행 종료 후 14일 이내 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



면 된다. 심사 후 모바일 심정상품권 지급하게 된다. 현재는 서류 제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군은 올해 안으로 온라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더 쉽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행하면서 쓴 돈이 다시 혜택으로 돌아오는 구조인 만큼, 곡성을 천천히 즐기며 머무는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께 특히 추천한다"라며, "앞으로도 여행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카메라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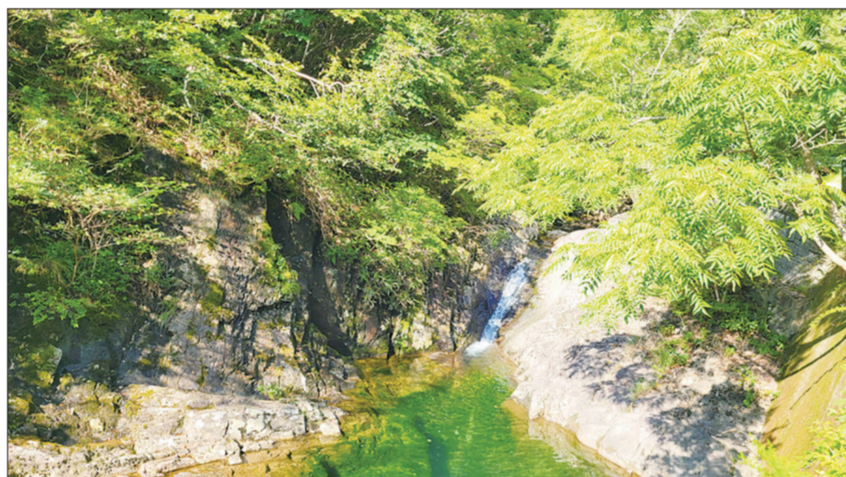


### 구례군, 동절기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행사 개최

전남 구례군은 지난 5일 군의회 광장에서 광주·전남혈액원 이동헌혈버스를 운용하여 '생명나눔 헌혈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년 동절기마다 반복되는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2월은 학생들의 방학과 연이은 한파의 영향으로 헌혈 참여가 급감하는 시기인 만큼, 지역 내 안정적인 혈액 공급체계를 지원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뜻을 모은 구례군 공직자들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헌혈 참여자에게는 헌혈증서 발급과 함께 혈액형 검사, 간 기능 검사(ALT), 총 단백 검사 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진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감사의 의미를 담은 소정의 기념품도 전달되었다.

구례/한경호 기자



### 담양군, 설 당일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담양군(군수 정철원)이 설 당일인 17일 죽녹원 등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한다.

담양군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 모두에게 병오년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 추억을 선물하고자 설 당일인 2월 17일 담양의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을 비롯해 메타랜드, 소쇄원, 가마골생태공원 4개소를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 주요 관광지의 환경과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고, 지역 식품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군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담양을 찾는 모든 분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며 담양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 무안군, 공간정보통합플랫폼 사용자 교육 실시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무안군 공간정보통합플랫폼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플랫폼 도입 이후 사용자들의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 현장에서 공간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교육은 플랫폼 주요 기능 안내를 비롯해 공간정보 자료의 등록과 유지 관리 방법 등 실무 활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행정업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운영돼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최영인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간정보 기반 행정업무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실무 적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